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목포시정소식



CONTENTS

목포시정소식 2018.Vol.75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목포시정소식

- 03 기획코너** 목포는 지금
민선7기 공약사업 소개
- 13 목포사용설명서**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 14 문화관광** 목포 역사·문화탐방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항구축제 VS 문화재야행
- 18 목포곳곳** 서산동 바보마당
- 19 당신의 이름은** (주)공장공장 홍동우 대표
- 20 목포, 다시 살다** 도시재생 게스트하우스
- 21 시정소식**
- 24 의정소식**
- 26 정보마당**
- 29 우리 동네 소식**
- 33 통(通)하는 목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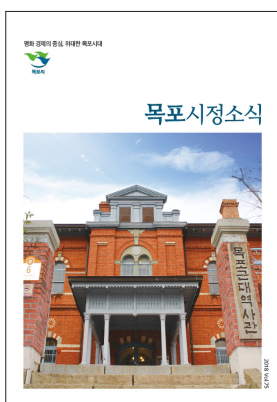
14



18



20



Cover Story

목포 근대역사관 1관
(구 목포 일본영사관)

발행처 목포시

편집인 공보과

발행일 2018년 12월

주 소 목포시 양을로 203(우)58613

전 화 061-270-8539

목포시정소식지는 <http://www.mokpo.go.kr>에서도 볼 수 있으며,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목포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포는 지금 - 서남권 종합발전

서남권 상생발전, 목포가 큰 그림 그린다

서남권 7개시·군 경제 통합으로 지역경제 발전 모색

목포시가 서남권 7개 시·군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나섰다.

경제, 산업, 관광, 문화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완도, 진도 등 서남권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국가 사업화하고, 서남권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게 목포시의 입장이다.

서남권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수립해 환황해권 경제 벨트의 시작점으로서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게 목포시의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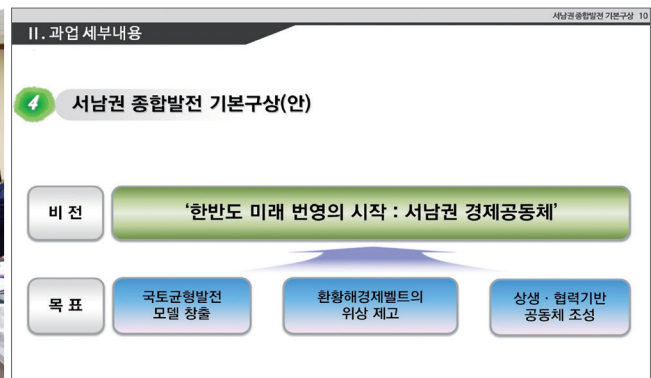
목포

‘서남권 종합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 추진

최근 목포시는 서남권 미래전략 산업 등 대형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서남권 종합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11월 28일에는 전남 서남권 7개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내년 4월까지 진행할 이번 용역의 중점 과제는 ▲서남권 미래전략산업 등 대형 프로젝트 발굴 ▲해양관광 레저산업 육성 ▲에너지신산업 허브 조성 ▲수산식품 산업 육성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 ▲중국, 남북 교류·협력 사업 ▲서남권 지역 연계협력사업 발굴 ▲각 지자체별 특화산업 육성 등이다.

목포시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서남권 지자체와 공동 사업 추진을 논의하고 정부에 예산 지원 등을 건의해 정부 정책에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방침이다.



목포는 지금 - 도시브랜드 마케팅

목포 지역특색 살린 브랜드로 관광객 사로잡는다

브랜드 슬로건 '낭만항구 목포' 선정, 도시 이미지 홍보에 활용

목포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도시 이미지를 함축하는 슬로건 선정을 위한 공모와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등의 선호도 조사 결과 '낭만항구 목포'가 브랜드 슬로건으로 선정됐다.

'낭만항구 목포'는 항구, 야경, 유달산, 원도심 풍경 등 감성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산재해 있는 목포가 연인과 관광객에게 낭만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7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낭만항구 목포'를 목포의 대표 상표로 등록하고, 디자인화하여 관광마케팅과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 잃어버린 목포의 맛과 명성 되찾는다!

목포 음식을 브랜드 마케팅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는 지난 9월부터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한 '맛의 도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된 업무를 총괄하며 홍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홍보는 명인이 설명하는 시사회, 유명 먹방 유튜버 활용, 음식별·권역별로 정리한 푸드로드(Food Road) 발간, 골목길 맛집과 연계한 도보여행 코스 개발, 9미를 활용한 음식 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지난 12월에는 서울대 문정훈 교수를 비롯한 관련 분야 교수, 유명 셰프, 언론인, 음식작가, 서울대 연구원 등 음식 전문가 일행을 초청해 목포의 맛을 소개하고,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과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시는 2019년 '맛의 도시 목포 원년의 해' 선포식 개최를 시작으로 목포 음식을 전국에 알리는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목포가 음식을 맛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드는 도시, 세계적인 맛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목포의 맛 브랜드 상품화를 추진한다.



매력 있는 목포,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PD연합회 기획 답사단 방문

최근 각종 TV 예능, 먹방, 다큐 프로그램, SNS 등 다양한 미디어에 목포시 관광자원이 홍보되면서 목포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시는 목포 관광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11월 23~24일 한국PD연합회(회장 류지열 KBS PD) 회원들로 구성된 기획 답사단을 맞아 목포를 집중 홍보했다.

한국 PD연합회는 국내·외 방송 등 미디어계 종사자로 구성된 단체로 이번 답사를 통해 근대 역사문화 자원과 맛 등 목포만의 매력을 엿보면서 촬영 소재로서의 가치를 면밀히 살피고 다양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류지열 회장은 “이번 기획답사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목포만의 특별한 이야기, 정겨운 풍경, 맛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목포 문화유산 알아가기 팸투어 진행

지난 11월 29일에는 문화재 및 문화유산 담당 기자 10여명을 ‘목포 문화유산 알아가기 팸투어’에 초청해 최근 방문객 수가 부쩍 늘어난 원도심 일대에 산재한 근대역사문화자원 등의 가

치를 알리고, 홍보 소재를 제공했다. 아울러, 일제 수탈의 아픔과 개항의 역사를 통해 도시재생과 문화재 정비를 적극 추진 중인 목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목포를 잘 팔아보자’ 미디어 마케팅 강화

목포시가 tvN ‘나이거참’, KBS광주방송 ‘전매청(전라도매력청)’, KBS2 ‘배틀트립’, SBS 생방송투데이, 베트남, 일본 예능 프로그램 등의 방송 취재 촬영 장소로 주목 받으면서 목포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있다.

시는 향후 방송프로그램 등 파급력과 확산성이 큰 미디어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미디어 마케팅 전담 조직을 신설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종편의 예능이나 먹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 목포시의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목포는 지금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한다

만호동 '개항의 거리', 서산동 '문화가 있는 마을' 조성



‘목포 근대역사’와 항구마을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목포시는 쇠퇴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사업비 54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목포 만호동(1897 개항 문화의 거리)과 서산동(보리마당) 일대를 중심으로 21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만호동 도시재생 사업은 1897년 개항 이후 보존된 근대 역사문화 자산들을 활용해 당시 모습을 재현한 개항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골자다. 또한, 창업을 위한 지원공간과 임대주택이 조성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도 펼쳐진다. 개항 이후 항구마을이 들어선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사업은 우수한 바다경관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초점이 맞춰졌다. 허름한 주택과 골목길을 단장하고 주차장 조성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을 조성해 낙후된 지역을 문화가 있는 마을로 탈바꿈시킨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체 활성화 용역 발주



목포시가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체 활성화’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주민과 지역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공동체 활성화 과업을 통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재생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우선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주민 대면활동과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재생사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비정기적 간담회 개최도 추진한다.

또 소유자, 세입자, 상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관리 프로세스 구축과 상호 간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 통합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거버넌스 기반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상가군별 젠트리피케이션 인식 공유를 위한 주민설명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상가별 임대차 계약 추진사항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도 힘을 쏟는다.

목포는 지금 - 수산식품 육성

서남권 수산식품 융복합벨트 조성으로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로 도약한다

서남해 수산물 집산지 목포에 ‘서남권 수산식품 융복합벨트’ 조성

목포시가 생산, 저장, 가공, 유통, 수출, 연구 기능을 종합하여 처리하는 서남권 수산식품 융복합벨트를 조성한다.

시는 2023년까지 냉동·냉장 창고, 판매시설, 가공공장, 거점형 위판장, 수출지원 시설 등 수산업 관련 시설을 총망라한 2천억원 규모의 수산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한다.

목포의 수산업은 현재 인프라로는 고부가가치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서남권 수산식품 융복합벨트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

시는 용역을 통해 목포 수협 이전 사업, 바이오향장산업 육성, 기존 시설인 수산식품지원센터·해양수산복합센터·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남권 수산식품 융복합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목포수산물수출단지조감도

수산식품산업 적극 육성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목포시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목포 대양산단에 942억원을 투입해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수산식품 관련기업 유치 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시는 현재까지 수산식품공장을 집적화하기 위한 세일즈 행정을 펼쳐 대양산단에 17개 수산식품 업체를 유치했고,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를 통해 목포수산물 통합브랜드 ‘목포어보’, 개별브랜드 ‘구을비’와 ‘올리미’, ‘간&건프로젝트, 어첩반상’ 등을 각각 개발해 상표등록을 마쳤다.

지난 8월에는 베트남과 일본 시장을 개척하여 조미김 업체 수출계약, 일본 김 가공기업과 수출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11월에는 중국 연운항시, 하문시, 동항시, 연태시 등에 소재한 6개 기업, 중국 수출 전문 에이전시 1개사, 목포시 13개 수산식품기업 등이 참여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수산식품 중국 수출길 확대를 모색했다. 시는 수산가공품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 발굴 및 상용화 지원, 수출형 가공 제품 개발 및 기술 컨설팅,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등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근대역사문화 1번지 목포, 문화예술 부흥을 선도한다

‘특화된 문화축제 브랜드’ 구축

‘낭만항구 목포’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표방한 목포의 내년 가을이 더욱 특별해진다. 시는 목포를 대표하는 축제와 대형 문화예술행사, 각종 전시·공연을 연계해 하나로 집약시킨 ‘특화된 문화축제 브랜드’ 구축에 나선다.

목포항구축제를 비롯해 목포문화재 야행, 세계 마당페스티벌, 난영가요제와 목포가요제, 시립 교향악단·합창단·무용단 등 6개 시립예술단체의 정기 공연, 민간단체 주도로 열리는 각종 전시·공연(버스킹) 등을 하나의 테마로 엮어 매년 9~10월 두 달 동안(추석 명절이 있는 주는 제외) 매주 금·토·일 3일 동안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은 산발적으로 개최해 온 문화예술 행사를 집약시켜 중복 예산을 줄이면서 추가 예산 투입 없이도 홍보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주요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는 곳이 공교롭게도 모두 원도심 일원이어서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 침체에 빠진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 공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 선정

지난 8월 전국최초 면단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목포 만호동·유달동 일대의 목포근대문화역사공간(등록문화재 제718호)이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근대문화유산이 집적된 원도심 일대를 포괄적으로 관리·활용하고자 문화재 등록을 추진했으며,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이 문화재 등록에 이어 문화재청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근대역사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과 10월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개최된 ‘목포 문화재야행(夜行)’

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목포는 ‘근대역사문화 1번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됐다.

‘목포문화재 야행’은 내년 9월에도 만나볼 수 있으며, 시는 내년 봄 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한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공연’과 ‘유달산 토요일문화마당’을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부흥을 이뤄낼 전망이다.

또한 근대역사 이야기공원을 조성하여 문화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근현대사 발굴 및 스토리텔링으로 목포를 명실상부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목포는 지금 - 국제슬로시티 가입

느낌표! 와 '쉽표' 가 있는 목포, 슬로시티로 특화한다

한국슬로시티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목포시가 목포진과 근대문화유적이 잘 보존된 '1897년 개항의 거리' 등 원도심과 특산물이 풍부하고 다도해 경관이 아름다운 외달도·달리도 등에 대한 국제슬로시티 가입을 추진한다.

슬로시티는 지역민이 주체가 돼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는 '지역 살리기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완도 청산도 등 15곳을 비롯해 전 세계 30개국 255곳이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돼 있다.

슬로시티로 지정되면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월 5일 신규 슬로시티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 15일에는 한국슬로시티본부(이사장 손대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슬로시티본부는 목포시의 슬로시티 지정가입을 위한 제반 절차를 대행하고, 슬로시티 운동·정신의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명회와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내년 4월 국제슬로시티연맹 현장실사에 이어 6월 지정·가입을 목표로 슬로시티 가입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가고 있다.



슬로시티 기본 정신 함양을 위한 전문가 초빙 교육 실시

목포시는 지난 11월 5일 시청 회의실, 시의회 소회의실 등에서 시민, 시의원, 공무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슬로시티 기본정신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손대현 한국슬로시티본부 이사장이 '슬로시티의 목적과 철학'을, 장희정 한국슬로시티사무총장이 '목포, 왜 슬로시티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진행됐다.

시는 이러한 시민과 공무원 교육 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슬로시티 운동의 의의와 효과를 홍보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목포는 지금 -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로 목포에 젊음과 활력 불어넣는다

청년 취업·창업 지원 통해 청년의 꿈 응원



목포시가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자금 지원,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먼저, 청년들의 취업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17명의 목포시 청년들은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등 5개 기관에서 일 경험을 쌓고 있다. 이와 함께 참신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과 초기 창업가 22명(팀)을 선발해 전문적인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예비 창업가의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하고, 신생(Start-up) 기업 등의 사업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고용 창출, 매출 증가와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컨설팅 및 멘토링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발해 1인(팀)당 최대 1,500만원 까지 지원금을 보조했다.

한편,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특별보증하는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중갓돈 지원) 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시민주도 공간 활성화 사업인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도 추진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보해양조(주)와 청년점포 조성 업무협약 체결

지난 9월 목포시는 보해양조(주)(대표이사 임지선)와 원도심 보해상가에 청년점포를 조성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청년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보해양조가 임대보증금(10만원)과 임대료(3.3㎡당 1만원)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시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창업 컨설팅, 인테리어 등 창업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지난 10월 모집 결과 총33명이 지원해 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서면심사, 창업교육 등을 거쳐 10명의 청년창업자가 선정됐다. 선정된 아이템은 브런치 레스토랑, 일본식 샌드위치, 민물어죽 판매, 곰탕, 청년사진관 등이다. 이에 앞서 목포 원도심에는 도시재생 청춘창업 사업으로 41개 청년점포가 들어서 맛집, 문화예술 체험,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관광객과 지역민 등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민선7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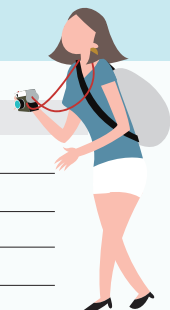
공약사업을 소개합니다!

1 경제·일자리

연번	공약명	이행목표(임기내)
1-1	대양산단 기업 유치	· 분양률 100% · 60여개 기업유치('18. 11월 기준, 분양률 51%)
1-2	세라믹산단 기업 유치	· 분양률 100% · 10여개 기업유치('18. 11월 기준, 분양률 30%)
1-3	서남권 경제 통합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서남권 7개지역(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진도·완도)
1-4-1	목포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종잣돈 지원)	· 청년창업자 특별보증금 출연
1-4-2	목포 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	· 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 ※ 기업은행 협력사업으로 추진
1-4-3	목포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	·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1-4-4	목포 청년 글로벌 해외 취업 지원	·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1-5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관련부품 생산단지 조성 · 신재생에너지 전용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을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
1-6-1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 사업	· 어르신 봉사단 290명 확충
1-6-2	생산적인 노인일자리(시장형) 창출	· 시장형 일자리 참여자 540명 확충
1-6-3	은퇴 고급인력 「청년 시니어 멘토」 운영	· 청년 시니어 멘토단 80명 구성·운영
1-7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 장애인 일자리 1,607명 확충
1-8	여성 일자리 창출	· 직업훈련교육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7,800명에게 제공
1-9-1	해양레저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 요트조정면허 교육·취득(年 125명) · 동력수상 레저기구조정면허 교육·취득(年 125명)
1-9-2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1-9-3	목포 앞바다 해양스포츠 안전구역 지정	· 해양스포츠 안전구역 지정 완료
1-10	서남권 수산종합타운 조성	· 서남권 수산종합타운 조성위한 신규시설 공사 추진
1-11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12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 창작 및 전시활동 공간 15개소 조성

2 관광

연번	공약명	이행목표(임기내)
2-1	해양관광산업 육성	· 연안 및 다도해 크루즈 관광상품 실현
2-2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 조성	· 열린관광지 2개소 조성
2-3	맛의 도시 목포 실현	· 목포의 맛 선포 및 관련 세부사업 추진
2-4	목포시 슬로시티 조성	· 국제슬로시티 가입 승인
2-5	유달산·삼학도 사계절 꽃피는 관광명소 조성	· 유달산, 삼학도 테마화단 조성
2-6	30리 바닷길 산책로 조성	· 평화광장~해양대학교 구간 30리 바닷길 산책로 조성



3 보육·교육

연번	공약명	이행목표(임기내)
3-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3개소)
3-2	장난감도서관 운영	· 장난감도서관 1개소 운영
3-3	초등학생 지역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	· 지역돌봄센터 운영
3-4	아동 보육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 어린이집 198개소 공기청정기 보급
3-5	민간·가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차액보육료 4만원까지 확대 지원
3-6	건강한 그린푸드존 조성	· 그린푸드존 구역내 지도 관리(年 103개소) 및 식품판매환경 개선
3-7	학교치과 주치의 운영	· 관내 초등학교 4학년(2,500명)대상 치과주치의 사업 실시
3-8	진로체험지원센터 확대 지원	· 진로체험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진로·진학설명회 매년2회 개최
3-9	학교별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 매년 20개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3-10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옥암대학부지)



4 복지·건강

연번	공약명	이행목표(임기내)
4-1	어르신 한울타리 행복 주택 제공	· 한울타리 행복주택 10개소 조성
4-2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제공	· 저소득 거동불편 세대에게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제공
4-3-1	노인 건강게임방 운영	· 건강게임방 4개소 설치
4-3-2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건립	·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건립
4-3-3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지속 지급	·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지급
4-3-4	어르신 취미활동비 지급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보건복지부) ·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하여 어르신 취미활동비 지급
4-4	출산장애여성 육아돌봄 지원사업	· 출산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사업 시행
4-5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 장애인 편의시설 1,352건 점검
4-6	공공형 100원택시 운영 지원	· 공공형 100원택시 확대 운영(저소득층 학생 200여명)
4-7	택시 쉼터 조성 사업	· 택시 쉼터 1개소 조성
4-8	브랜드콜 택시 통합 지원	· 택시 콜업체 통합(4개소→1개소)
4-9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 사업	· 바우처 택시 10대 운영
4-10	미용인 교양 및 기술함양 지원	· 매년 2회 미용기술교육 운영
4-11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190개소/7,200명)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4-12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확대(신설)	· 게이트볼장 4개소 기능보강 및 유달게이트볼장 이전
4-13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4-14	리틀야구장 조성	· 리틀야구장 1개소 조성
4-15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활성화 추진	· 조례 개정 및 민간위탁금 지원 확대

5 소통·안전

연번	공약명	이행목표(임기내)
5-1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온/오프라인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5-2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투명한 계약시스템 구축 및 지역업체 보호 육성
5-3	시민 청원제 운영	· 시민 청원 홈페이지 구축
5-4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 제도 운영	· 인사 관련 규정 개정 및 기준 마련
5-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안전대책 마련	·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및 시설안전 대책 마련
5-6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 경로당(190개소) 노후시설 개보수
5-7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5-8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 어린이 보호구역 14개소 지정
5-9	교육 현장과의 소통 확대	· 교육공동체 구성원과의 간담회 개최 및 교육행정기관 협의체 운영

치매, 이젠 안심하세요!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목포

전남에서 최초로 문을 연 목포시치매안심센터는 기존의 상담·검진·사례관리 중심으로 운영하던 치매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치매예방·조기 진단·가족지원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상담실·검진실·프로그램실·가족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 10명을 확보해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위 치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행정타운 3층
- 규 모 연면적 1,048㎡(317평)
- 상담전화 목포치매안심센터(09:00~17:00) 061-270-4271~5
 ※ 점심시간 12:00~13:00
 치매상담콜센터(24시간) 1899-9988
- 홈페이지 mokpo.nid.or.kr(※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제공서비스

1.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관리
2. 상담·등록·맞춤형 사례관리
3. 치매환자지원
4. 치매가족지원

운영 프로그램

1. 치매예방교실(기억지킴학교)
2. 인지강화교실(기억채움학교)
3. 치매환자쉼터(기억이음쉼터)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 등록번호 : 등록문화재 제718호(지정일 2018. 8. 6.)
- 규 모 : 114,038㎡(602필지)
- 소 재 지 : 유달동 8외 601필지

근대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숨 쉬고 있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만호동·유달동 일대/114,038㎡)」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개항기부터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지 목포의 역사 문화 및 생활의 변천사를 엿볼 수 있는 장소로서 근대건축 유산이 풍부하게 분포된 곳이다. 또한, 공간 내의 '구 목포화신연쇄점', '구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 등 15건은 주거 건축사, 생활사 등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됐다. 한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으로도 선정돼 문화재와 지역이 공존하는 명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등록문화재 제718-3호 목포번화로 일본식 가옥-3

소재지 : 목포시 번화로 6-2(중앙동3가)

1920년 설립되어 일제강점기 농업 및 임업, 개간 및 정지의 임대차 업무를 취급하던 후쿠다농업주식회사의 사택으로 일본인 주거지의 흔적을 보여주는 공간요소이다.

①

등록문화재 제718-8호 목포 해안로 일본식 상가주택

소재지 : 목포시 해안로229번길 29-1(대의동1가)

근대기 목포의 대표적 변화가이자 상업중심거리였던 구 목포경찰서 앞 교차로 모퉁이에 건축된 2층 규모의 목조건물로 건축형식은 일본 전통 공동주거 형식이다.

③

등록문화재 제718-6호 구 목포 일본기독교회

소재지 : 목포시 해안로165번길 50(대의동2가)

1922년 9월 준공 후 1927년 한차례 증축된 일본인이 예배를 드렸던 기독교회이다. 근대기 동양척식주식회사 주변 시가지의 흔적과 기억을 담고 있으며, 당시 일본교회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다.

②

등록문화재 제718-10호 목포 부두 근대상가주택

소재지 : 목포시 해안로229번길 2-2(영해동1가)

1949년 해방 이후 목포 부두 인근에 위치해 어선에 필요한 물품들을 판매하던 점포의 기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가로 2층 규모의 벽돌 구조체 건물이다. 연속적으로 구성된 3면의 입면 구성이 인상적이다.

④



등록문화재 제718-11호 구 동아부인회 목포지점

소재지 : 목포시 변화로 62(행복동2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부인들이 필요한 가정용품과 생활 용품을 판매했던 '동아부인상회'로 사용되던 건물이다. 구 화 신백화점과 함께 대표적 상가건물로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어 장소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

⑤

등록문화재 제718-15호 구 목포 화신연쇄점

소재지 : 목포시 변화로 75(상락동1가)

일제강점기 당시 동아부인상회와 함께 목포지역의 대표적인 판매시설로 당시 건물로서는 특이하게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로 건축되었다. 모더니즘 건축기법을 선구적으로 적용한 근 대기 당시의 생활상, 장소성을 보여주는 상가건물이다.

⑦

등록문화재 제718-14호 목포 해안로 붉은 벽돌창고

소재지 : 목포시 수강로12번길 23-6(보광동3가)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창고로 추정되며, 근대기 목포 부두와 그와 연계된 창고 지역의 흔적, 역사성, 장소성을 보여주는 붉은 벽돌 창고로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해 현존 사례 가 적은 창고이다.

⑥



항구축제

목포의 대표 축제인 '목포항구축제'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새롭게 선보인 '목포문화재야행'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목포의 멋과 매력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두 가지 행사의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신명나는 파시 한판! 2018 목포항구축제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지난 10월 7일 하루로 축소 개최됐지만 가을 항구의 낭만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목포항구축제는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뚫어파시길 놀이, 선상 파시경매, 어생그랜드세일, 목포항 낭만 열차, 맨손물고기잡기, 바다콘서트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채우며 방문객들에게 가을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올해에는 싱싱한 활어를 경매하고, 경매로 구입한 생선을 요리해 먹을 수 있는 파시 수랏간 회터와 구이터를 새롭게 선보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문화재야행



근대문화 1번지로 떠나는 夜한 문화재 여행, 목포야행(夜行)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인 목포야행(夜行)이 '남만항구 목포로 떠나는 밤거리 문화축제'라는 주제로 원도심과 주요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9월 7~8일(1차), 10월 26~27일(2차) 각각 개최됐다.

목포야행은 밤에 비춰보는 야경(夜景), 밤에 걷는 거리 야로(夜路), 밤에 듣는 역사이야기 야사(夜史), 밤에 보는 그림 야화(夜畵), 공연이야기 야설(夜說), 음식이야기 야식(夜食), 문화장터 야시(夜市), 문화재에서 하룻밤 야숙(夜宿)등 8야(夜)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밤 나들이객들에게 근대건축물과 원도심의 매력을 뽐낸 목포야행은 목포의 밤을 아름답게 물들이며 1차와 2차 야행 모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골목에 스며든 예술공간, 서산동 바보마당

위치

목포시 보리마당로 22번길 3-3 일대

운영시간

오전~17:00(연중무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쓸쓸함이 묻어나던 서산동 보리마당에 진한 예술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향기의 진원지는 바로 서산동 예술인촌 공터에 문을 연 바보마당.

이름만 들어서는 쉽게 짐작이 가지 않지만 바보마당은 서산동 보리마당에 영감을 받은 예술인들이 예술인촌 공터

를 '바다가 보이는 마당'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바보마당 주변으로 '그여름 프랑스 자수교육관', '골목의 바다 + 사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미술관 이꽃', '갤러리 지우' 4개소가 지난 10월 4일 동시 개관했고, 앞으로 서각과 목공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예술가들이 더 입주할 예정이다.





쉬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은 ‘목포 괜찮아 마을’

지구상 어딘가에 청년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를 꿈꿔왔다. 느낌표와 쉼표를 찍을 수 있는 도시 ‘목포’에 공간이 마련되고, 행정안전부의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홍동우 대표가 꿈꾸던 괜찮아 마을이 지난 8월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주)공장공장 홍 동 우 대표



사진출처: 괜찮아 마을

Q. 괜찮아 마을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A. 괜찮아 마을은 청년들이 조금 지쳤을 때 쉬어도 괜찮고, 또 실패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30명의 청년이 6주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함께 지내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괜찮아 마을의 탄생배경이 궁금한데요.

A. 저희는 한때 꿈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었어요. 4년 전에 전국을 여행하는 ‘익스퍼루트’라는 여행사를 만들었고, 4년 동안 약 1,200여명에 가까운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장소를 바꿨다가며 여행을 다니는 게 소모적으로 느껴졌고, 고정된 장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탄생한 게 제주도의 한량유치원이에요. 49일간의 운영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청년들에게는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걸 어디에서 할까 고민하던 중 한량유치원에 손님으로 오셨던 강제운 시인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목포로 오게 됐고, 행안부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괜찮아 마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Q. 괜찮아 마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A. 저희가 감히 청년들에게 “괜찮아”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그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조금 괜찮아져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괜찮아 마을의 역할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Q.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발견하는 시간, 아무 상상 대잔치, 상상 근육 키우기, 누구나 선생님, 괜찮은 여행, 괜찮은 식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Q. 처음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A. 일단 처음 걱정했던 것보다 잘 진행되고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저희가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Q. 괜찮아 마을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A. 괜찮아 마을은 처음부터 계속 운영할 생각으로 기획을 했고, 설계가 됐어요. 올해는 행안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2기수까지는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구요. 내년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6주가 됐든 2주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괜찮아 마을은 계속될 겁니다.

Q.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A. 괜찮아 마을이 정부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 가능한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사실 청년 문제에서 출발했고, 청년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어쩌면 이것이 도시재생 등에 있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역재생 쪽으로 이 플랫폼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괜찮아 마을을 다른 지역에도 유치해서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

게스트하우스

목포시는 특화된 숙박 시설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재생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성된 게스트하우스 모두 각자의 매력을 뽐내며,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도심 속 뛰어난 전망을 자랑하는 게스트하우스 두 곳을 만나봤다.



피카소 게스트하우스

- 위 치 목포시 호남로64번길 23(대안동)
- 전화번호 010-8139-5581
- 홈페이지 mkpicasso.modoo.at · blog.naver.com/picassogh
- 이용요금

구분	평일	주말	비고
모네(16평)	150,000원	160,000원	최대 8인
고흐(15평)	120,000원	130,000원	최대 6인
마티스(16평)	150,000원	160,000원	최대 8인
피카소(12평)	120,000원	130,000원	최대 6인
클림트(10평)	60,000원	80,000원	최대 4인

※ 1인 추가 시 20,000원

- 이용시간 체크인 15:00~22:00 체크아웃 10:00
- 특 징 고데기, 삼각대, 셀카봉, 충전기 대여 가능
게스트하우스 내 갤러리 관람 가능, 일어·영어 소통 가능
건물 전체 CCTV 설치(객실 제외), 고급 순면 침구 사용



셀레임 게스트하우스

- 위 치 목포시 달성길 27번길 5(죽교동)
- 전화번호 010-9001-5886
- 홈페이지 blog.naver.com/yuone3775
- 이용요금

구분	평일	주말	비고
2인실(트윈실)	60,000원	70,000원	
2인실(더블베드룸)	60,000원	70,000원	최대 3인
6인실(온돌방)	150,000원	160,000원	
8인실(온돌방)	200,000원	210,000원	

※ 2인실(더블베드룸) 1인 추가 시 10,000원

- 이용시간 체크인 15:00~22:00 체크아웃 11:00
- 특 징 자율조식(토스트, 우유, 시리얼, 커피, 주스),
자이글 무료 대여, 텃밭 채소 무료 제공
전 객실에서 전망 감상 가능, 객실 마다 출입문 별도

목포대양산단, 5개 기업과 526억원 투자협약 체결

목포시와 전라남도가 지난 11월 22일 목포시청에서 김 가공 공장 등 5개 기업과 총 52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명주 (주)해농 대표, 곽명숙 엠에스푸드영어조합법인 대표, 강충열 (주)동방이엔지 대표, 이찬식 (유)대한개발 대표, 이승용 (유)사회적기업유비에코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해농은 9,576㎡에 275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마른김 및 조미김 등 가공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50

명 고용이 예상된다.

2020년까지 마른김 등 가공공장을 건립할 계획인 엠에스푸드영어조합법인은 6,613㎡에 150억원을 투자해 8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주)동방이엔지는 5,249㎡에 51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옥외게시대 등 철구조물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40명 고용이 예상된다.

2019년까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공장 건립 예정인 (유)대한개발은 6,914㎡에 30억원을 투자해 20명 고용이 예상되고, 2019년까지 LED



조명기구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인 (유)사회적기업 유비에코는 4,077㎡에 20억원을 투자해 8명을 추가로 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면 실시

목포시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시는 지난 8월 14일 연산동, 대성동, 삼학동, 만호동, 이로동, 삼향동, 옥암동 등 7개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신설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8개동에 처음 설치한 이후 전체 23개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복지허브화의 새로운 이름으로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가 강화됐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보건·의료·간호직 팀장을 5개동에 배치했고, 지난 9월에는 5개동에 방문간호직을 배치해 보건과 복지를 함께 힘쓰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민선7기 첫 조직개편안 확정

목포시가 민선 7기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목포시 조직은 9국소단, 2실, 43과, 192담당이며, 총 정원은 1,203명으로 변동이 없다.

시는 기업유치 및 대양산단 분양활성화를 추진할 전담조직인 '성장동력실'의 명칭을 '기업유치실'로 변경하는 한편 분산되어 있는 산단조성과 기업유치 업무를 일원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서를 신설한다. 고용·산업위기 극복과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과'를 새롭게 구성하고,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청년정책과'로 개편한다.

도시재생사업을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문화재사업과 내실있게 연계·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과'를 '도시문화재과'로 개편한다.

브랜드 마케팅 강화도 꾀한다. 이를 위해 업무별 브랜드 마케팅을 선제적·전략적으로 총괄·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에 미디어마케팅담당을 신설한다. 시는 올해 안까지 시의회 승인을 얻어 연말까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초 조례규칙을 공포한 뒤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민청원제 운영 시작

목포시가 '온라인 시민청원제'를 지난 10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청원대상은 시 주요정책, 불합리한 제도, 현안사항 등에 대한 정책적 건의나 개선 요구로 신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열린시장살' 코너에서 가능하다.

청원 추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500명 이상 지지를 얻으면 성립되며, 관계자 의견 수렴, 관련 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방안을 마련해 2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온라인으로 답변하고 시정에 반영하게 된다.



9월부터 단독가구 기초연금 인상

목포시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9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최고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소

득기반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존에는 단독가구 기준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 9,960원까지 차등 지급해 왔다.

이번 확대로 목포시 관내 2만6,489명 기초연금 수급자 중 91%인 2만 4,105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도 예산안 8,689억원 편성

목포시가 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 총 8,689억원(일반회계 7,855억원, 특별회계 834억원)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보다 총 1,980억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채 1,300억원이 포함된 2,091억원(36.29%)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11억원(11.77%)이 감소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또 지방보조사업 축소, 신규 사업 최대한 억제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해 재

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대양일반산단 미분양 토지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1,300억원) ▲2022년 전국체전 대비 종합경기장 신축경비(100억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1897개항문화거리 조성(78억원) 및 서산동 보리마당(22억원)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90억원) ▲어촌뉴딜300사업(10억원)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등에 비중을 뒀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 부문(3,115억

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4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67억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10억원) 남악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51억원) ▲도서(달리도, 울도 등)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25억원) ▲무상급식 고등학교 확대(69억원) ▲친환경 식재료 지원(66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동절기 설해대책 준비 완료

목포시는 지난 11월 30일 제설장비 차고지에서 '2018년 동절기 도로 제설단 발대식 및 제설장비 시연회'를 갖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시내일원 도로 15개 노선 228.6km에 대한 제설작업을 위해 간선도로 염화칼슘 살포차량 6대, 이면도로 소형살포기 차량 5대, 지게차 2대, 소방차 2대, 도로정비 차량 4대 등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염화칼슘 222톤, 소금 300톤, 모래주

머니 1만7천개, 모래 120㎥를 확보했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비탈길 등 취약지역에 모래적사함 154개를 설치했다.

시는 기상특보 발효시 적설량에 따른 단계별 제설대책도 세워 전 직원에게 비상근무발령 지침을 시달렸다. 지침에 따르면 제설차량, 염화칼슘 살포기 등은 작업 준비체계를 갖춘 뒤 비상 대기한다. 적설량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전 직원을 소집해 결빙 위험구간 13개소(13.5km)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민선7기 첫 시민과의 대화 실시

목포시가 민선7기 출범 이후 첫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7차례에 걸쳐 시의원 선거구 권역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를 통해 시는 민선7기 시

정목표인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의 선정 배경과 실행 전략 등을 설명했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위기가구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목포시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 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

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

하(4인 338만원),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본인, 친족, 위기상황을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시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사회복지과(270-8266)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도새재생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 지난 8월 1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인 김종익 박사(서울특

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이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펼쳐 시의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는 도시와 도시재생의 이해, 도시제정법의 제정배경과 도시재생사업의 범주, 도시재생센터의 역할, 도시재생뉴딜정책이 이해,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의 연계라는 5개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강연에 이은 토론에서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도시재생을 통한 목포시 발전의 방향을 모색했다.

한편, 제11대 목포시의회는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교육과 시 산하 주요 기관 방문 등 전문성을 갖춘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목포시의회 제342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민선 7기 첫 예산안 심사·의결 및 부의안건 처리
무안 남악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는 지난 9월 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11대 목포시의회 출범 후 첫 번째로 열었던 제342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9월 3일부터 18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비롯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성명서 1건, 조례제정안 1건, 개정안 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으로 총 1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활발한 현지 활동이 펼쳐졌으며, 2일간의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은 꼼꼼한



자료준비와 깊이 있는 질문으로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목포시의회가 앞장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무안 남악점 입점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무안 남악점 입점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목포시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아동원, 공생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에서는 지난 9월 19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시의원들은 아동·노인복지시설, 장애시설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17개소를 방문해 과일과 김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눴다. 이어 의원들은 시설 종사자들로부터 시설 운영에 따른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시설이용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의장은,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워지는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

들인 것 같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다면 지역 사회가 따뜻한 온기로 채워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고, “시의회에서도 소외된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목포시의회가 앞장선다

의회 앞 주차장 총 43면,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운영
의회 청사 내 시민민원실 추가 마련, 시민 섬김 실천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 빠른 걸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11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 건물 앞 주차장을 민원인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의회 방문 시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결정으로, 의회 건물 옆 주차공간도 추가 확보해 민원인 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로써,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기존 의회 앞 15면에서 28면이 추가된 총 43면의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회 청사 1층 별도의 공간에 시민민원실을 운영한다. 시민민원실은 시민들이 시의원들과 일대일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으로 꾸며져 제11대 목포시의회와 시민 간 새로운 소통의 통로가 될 예정이다.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은 “좀 더 너

덕해진 주차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의회에 의견이나 민원이 있을 시 언제든지 의회 청사 1층에 추가로 마련한 시민민원실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목포시의회가 앞장서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건강 · 보건

가임기여성 및 초기 임신부 무료검사 안내

지원대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여성 및 12주 이내 임신부

검사항목: 임신반응검사, B형간염 항원 · 항체, 혈액형, 빈혈, 매독, 당뇨, 단백질, 풍진, 에이즈

접수방법: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1층) 방문접수

구비서류: 신분증

목포시보건소 ☎ 061-270-3215

고혈압 · 당뇨병 등록관리 안내

사업대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 고혈압 · 당뇨병 환자

사업혜택: 만 65세 이상 등록자 매월 3,500원 지원(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만 30세 이상 고혈압 · 당뇨병 등록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안질환, 만성콩팥병)

진료일정 알림서비스(SMS, 자동전화) 및 치료누락자 상담 실시

상설 건강교실(질환 · 운동 · 영양) 및 내혈압 · 내혈당알기 캠페인 운영

등록방법: 목포시 소재 의원에서 등록 가능(보건소 제외)

목포시 고혈압 · 당뇨병 등록 · 교육센터 ☎ 061-285-7988

복지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성금모금 안내

모금기간: 2018. 11. 20.(화)~2019. 1. 31.(목) [73일간]

참여대상: 전 시민, 기업, 기관, 단체 등

참여방법: ① 언론매체 방문접수 및 온라인 계좌입금

※ 방송(KBS, MBC, KBC, CBS, BBS), 신문사(광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광주매일, 광남일보, 호남매일, 남도일보)

② 각 은행별 사랑의 계좌(금융기관)를 통한 모금

③ 금융기관, 시청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자율모금함

④ 행복해지는 전화 ARS ☎ 060-700-1212



사회복지과 ☎ 061-270-8892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시행

대 상 자: 기초연금수급자

감면금액: 월 청구금액의 최대 11,000원(단 22,000원 이하 요금청구액은 50% 감면 9,000원)

※ 감면은 신청일로부터 일할 계산 감면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신분증 지참) 통신사 고객센터(114)

참고사항: 본인 명의의 요금에 대한 감면만 가능

중복 감면 혜택 불가(예: 장애인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중복 감면 불가)

노인장애인과 ☎ 061-270-8605

목포시 민원 1회 방문 및 사회취약계층 전용 창구 운영

운영기간 : 연중(공·휴무일 제외)

운영장소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8번 창구

대 상 :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모든 민원인

운영내용 : 민원행정서비스 확대 실시

-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타부서 직원 연결 가능)
- 사회취약계층 전용 상담창구(장애인 보조기구 등 완비)

민원봉사실 ☎ 061-270-8565, 3518

옥외검침기 희망 수용가 신청 접수

옥외검침기? 집안(옥내)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에 대한 검침의 효율성을 기하고, 맛벌이(나홀로)세대, 장기출타 등 검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밖에서 단말기로 검침할 수 있는 장치

신청기간 : 2018년부터 연중

신청방법 : 유선(전화) 및 방문 신청
(남교동 트윈스타 5층)

상하수도행정과 ☎ 061-270-8699, 3525

미리미리 하세요!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동파방지기간 : 2018. 11. 15.(목)~2019. 3. 15.(목)

동파예방방법 : 계량기함(통)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워야 합니다.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하여야 합니다.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사용합니다.

동결시 조치요령 :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양쪽 연결배관을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여 서서히 녹여주세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여주세요.

계량기가 동파되면 수도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량기 동파신고 ☎ 061-272-3000, 061-270-8564

무인민원발급기 법원 민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법원 소관 민원	현재	변경
등기사항증명서(건물·토지·집합건물),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폐쇄), 기본증명서(폐쇄), 혼인관계증명서(폐쇄), 입양관계증명서(폐쇄)	업무시간 9시 ~ 18시	연중무휴24시간

※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 6개소(시청, 목원동, 하당동, 옥암동, 부흥동, 부주동)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8개소(시청, 목원동, 하당동, 옥암동, 부흥동, 부주동, 목포법원, 목포세무서)

민원봉사실 ☎ 061-270-3519

불합리한 규제애로, 중소기업인 누구나 신고하세요!

신고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신고내용 : 불합리한 규제에 의한 애로사항, 기업 영업 활동에 있어 불편·부담 사항 및 건의사항 등

신청방법 : 우편(목포시 양율로 203, 3층 기획예산과 규제개혁계), FAX, 방문 접수

처리절차 : 신청(목포시 규제개혁신고센터) ⇒ 접수(중소기업청 옴부즈만) ⇒

개선 방안 처리(해당 부처 등) ⇒ 결과 회신(개별 통보)

기획예산과 ☎ 061-270-8485, FAX 061-270-3578

유관기관

정치후원금 기부하고, 좋은 정치로 돌려 받으세요

중한 정치후원 소금

카드 포인트 기부 방법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치후원금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 061-287-1390

목포시노인복지관

‘2018 묵향을 찾아 떠나는 문화탐방’ 진행



목포시노인복지관(관장 정병순)은 지난 10월 25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복지관 이용 어르신 500명을 모시고 가을나들이 ‘2018 묵향을 찾아 떠나는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가을나들이는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진행되는 진도군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수목비엔날레 전시관 관람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통수목의 깊은 울림을 만나고 새로운 수목 세계를 체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모두가족 봉사단, 3.6kg 따뜻함을 전달하다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조혜정) 모두가족봉사단은 지난 10월 27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총 800장의 연탄 나눔 활동을 했다. 이날 참여한 71명의 모두가족봉사단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3.6kg의 연탄을 전달하며 지역사랑을 실천했다. 모두가족봉사단은 2인 이상 가족단위로 참여 가능하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활동하고 있다.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1-247-2311~2

‘가정위탁’이란 무엇일까요?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학대·방임·질병·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

가정위탁 유형

일반	대리	친인척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8촌 이내의 혈족)

위탁아동대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수감,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아동
-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시설보호 및 일시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가정위탁 신청방법

- 위탁아동: 관할 주민센터 가정위탁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
- 위탁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신청(일반), 관할 주민센터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조부모, 친인척)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www.jnfoster.org) ☎ 061-279-1225

용당1동



용당1동 성인문해교실, 현장 체험학습 실시

용당1동은 지난 10월 12일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21명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실 운영 활성화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극장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용당2동



‘스마일 사랑 나눔 가게’ 협약 체결

용당2동에서는 지난 10월 18일 동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일 사랑 나눔 가게’ 1~3호점을 개설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산정동



청호월빙공원에 꽃무릇 7천본 식재

산정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기석)에서는 지난 10월 23일 회원과 주민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호월빙공원 일원에 꽃무릇 종근 총 식재계획량 2만본 중 7천본(250만원 상당)을 심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연동



연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연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생활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연산동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 ‘사랑의 자장면 봉사’

연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 관내 공생재활원에서 중식으로 직접 조리한 자장면을 간식과 함께 제공하고, 치약, 섬유유연제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원산동



‘진도북놀이’ 신규프로그램 개강

원산동행정복지센터가 주민사랑방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도북놀이’를 개설하고, 지난 9월 11일 주민자치위원과 수강생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개최했다.

목원동



사랑나눔가게 9·10호점 협약 체결

목원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병철)는 지난 11월 13일 ‘사랑나눔가게’ 9·10호점 협약 및 현판식을 가졌다. ‘사랑나눔가게’는 민·관이 협력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맞춤형 나눔을 실천하는 목원동 자체 특화사업이다

삼학동



시장통 맛있는 음악회 개최

삼학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열)는 지난 11월 23일 자유시장 내 남진야시장 무대에서 시립예술단과 주민사랑방프로그램 공연, 야시장 가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시장통 작은음악회를 개최해 주민화합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었다.

대성동



대성경로당, 노인의 날 기념 경로위안잔치 개최

대성경로당에서는 지난 10월 16일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맞이하여 회원 및 주변의 저소득층 60여명을 모시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다과를 대접했다.

동명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진행

동명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미영)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수일), 새마을부녀회(회장 홍해자) 주관으로 자생조직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해 어려운 이웃 200세대와 경로당 5개소에 전달했다.

만호동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만호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서장권)에서는 지난 10월 한 주 간 ‘2018 만호동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4가구를 선정해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유달동



행복나눔사업으로 이웃사랑 실천

유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영태)가 지난 9월 12일 유달동 행복나눔사업(3호점) 협약을 체결하고, 홀로 사는 무의탁 어르신에게 건강 영양제를 매월 기탁하기로 했다.

죽교동



주민자치위원회,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청결운동 추진

죽교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관내 공한지의 노후 가림막 교체 및 보완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북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을사랑음악회 개최

북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치영)는 지난 8월 25일, 9월 29일 2회에 걸쳐 관내 복지 사각지대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노을사랑음악회를 북항노을공원에서 개최했다.

용해동



지역독지가, 용해동에 사랑의 쌀·양파 기탁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선행에 앞장서고 있는 청호라이온스클럽(회장 조민형)과 (유)현대유통농업법인(대표 공경수)이 쌀 10kg 30포와 양파 20kg 60망을 경로당과 저소득층·다출산가정·목포아동원 등 60여 세대에 전달했다.

이로동



‘서남권하나되기운동’ 농촌 일손 돕기 실시

이로동 통장협의회(회장 송용현)와 직원 등 20여명은 지난 11월 5일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양파재배농가를 방문해 양파모종심기 및 콩 메기 등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상동



함께해요! 상동 행복마을

상동3행복마을만들기위원회(회장 현영철)는 주민노래자랑, 텃밭 가꾸기, 매월 2회 단지 대청소, 주민이 함께 가꾸는 작은 공원 등을 추진하며 주민 모두가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당동



푸른 숲 행복마을 음악회 개최

동민노래자랑, 어린이 녹색장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11회 하당동 푸른 숲 행복마을 음악회'가 많은 지역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삼향동



'전원마을 삼향동 주말농장' 운영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동수)와 삼향골 마을기업은 도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농작물 재배와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4~11월) 150세대를 대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부흥동



부흥동 어울한마당, 성황리에 마쳐

부흥동어울한마당추진위원회(위원장 최덕선)가 주관한 제12회 부흥동 어울한마당 축제가 지난 11월 9일 둔근공원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흥이 가득한 동네'라는 슬로건으로 주민 1천여명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신흥동



주민자치회, '꿈돌이 문화탐험대' 운영

신흥동 주민자치회(회장 정원석)에서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꿈돌이 문화탐험대'를 운영하며 어린이들이 건강한 꿈나무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옥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취약계층 사랑의 집수리 봉사

옥암동 주민자치위원회(회장 박상락)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전기, 창문 등을 교체하는 등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부주동



우리 동네 김장해요!

부주동새마을부녀회(회장 이경하)는 지난 11월 7일 다문화과정과 주민사랑방의 기타연주가 함께하는 2018 사랑·나눔 '우리동네 김장해요'행사를 갖고, 관내 경로당과 독거노인 등 120여 세대에 사랑의 안심 김치를 전달했다.

通 — 통하는 — 목포

시민의 글



유달산 둘레길



문 정 인(부주동)

작은 배낭에 생수 등 몇 가지 간식거리를 챙겼다. 오랜만에 산에 올랐다. 유달산은 목포의 상징이기도 하다. 아내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자주 찾던 산이다. 아내의 수술 후 4년 만인가 싶다. 그 사이 유달산에도 이런저런 변화가 보인다. 최근에 조성된 둘레길 코스를 택했다. 어민동산에서부터 시작된 6.3길로의 둘레길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가 재미있다.

일제강점기 적산가옥과 1897년 고종 때 설치된 목포 일본영사관, 수탈의 현장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 등을 유달산 둘레길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식수원을 제공했던 제2수원지 터가 둘레길 조성과 함께 개방되었다. 텅 빈 수원지 터, 바로 아래는 아직도 척박한 아리랑고갯길이 힘겨워 보인다. ‘나송대 골짜기’에서 물 한 병을 꺼냈다. 나송대는 이곳이 명당자리임을 알아채고 자기 아버지 묘를 썼다. 훗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유달산에는 절집이 5곳이나 있다. 물론 작은 암자들이다.

그중 보광사는 제법 유명하다. 법당 안에 샘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보살의 귀뜸이다. 석가여래좌상 밑으로 물이 고여 생겨난 샘터인데 ‘깃샘’이라 부르며 아픈 사

람이나 특히 산모들에게 효험이 있단다. 절집 돌계단 틈 사이사이에는 아직도 잔 겨울이 느릿느릿 심통을 부린다.

반면 아래쪽 조각공원에는 햇볕이 자분자분 따스하다. 원래 이곳은 마을이었는데 유달산 공원화 개발로 인하여 주민들을 이주시켰다는 철거민 탑이 남아있다. 그때 들어선 조각공원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전시된 조각품들은 독특하고 기묘한 형상이어서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해도 해석이 쉽지 않다. 해석을 잠시 미루고 걷다 보면 무소유의 길을 만난다. 법정스님을 기리는 길이다. 법정의 본명은 박재철. 그는 목포와 인연이 깊다. 해남 출신으로 이곳 유달산 자락에 있던 전남대 상과대학을 다녔다.

그의 철학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 했다. 그러고 보니 매고 있는 배낭도 비워짐을 느낀다.

석양을 즐기려면 굳이 정상까지 오르지 않아도 된다. 낙조대가 제격이니 말이다. 고하도와 목포대교 사이로 떨어지는 일몰은 유달산 둘레길의 백미다. 유달산 둘레길이 쉼을 제공하듯 해상케이블카도 목포의 명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通—통하는—목포

주부명예기자의 글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이영자(상동)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어떤 시인이 그랬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는 크든 작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상동에는 상처가 유달리 큰 작은 영혼들이 머무는 조그마한 보금자리가 있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 학대와 유기, 방임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목포시 청소년 중장기 쉼터'가 그곳이다. 정상적인 가정을 갖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오준석 센터장과 직원들은 때로는 아빠, 때로는 형님이 되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살피고 있다. 이곳의 청소년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며 학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힘겨운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 이곳으로 이사 온 17살 정호(가명)는 유일한 혈육인 엄마조차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상처가 깊은 아이다.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취업하는 것이 꿈인 이 친구의 소원은 '아이폰 갖기'와 '용돈 받기'이다. 아이폰은 아직 기증자를 못 찾았으나 용돈은 마침 1년간 매월 3만 원씩 주겠다는 독지가가 나타나 10월부터 용돈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평생 이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켜봐 온 독지가는 "누군가가 그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지 않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고 밝혔다.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갯짓이 한 달 후 머나먼 곳의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그 아이를 버텨내게 하고, 사회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어른으로 성장케 하는 폭풍이 될 것이다. 그렇다. 여기는 작은 나비들의 씬 없는 날갯짓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주부명예기자의 글



누구나 살고 싶은 상동을 꿈꾸며



김애영(상동)

상동 상가 골목길이 한산하다.

15년 전만 해도 상동 상가 골목은 왁자지껄하며 활기찼었다. 하당이 생기고 남약 신도심들이 생기면서 인구가 하나둘씩 빠져나가더니 옛 모습은 찾을 길 없고 빈집 투성이다.

잘 사는 상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생각을 해 본다. 언제인가 외지에 사는 지인들이 오셔서 북항 회센터에서 식사 후 건어물을 사러 선창까지 갔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 생각한 게 건어물전과 갈치, 홍어 등의 먹거

리가 북항 회센터에 함께 있으면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하고 안타까웠던 일이 있다.

한곳에 모여 있으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더 나은 경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상동도 마찬가지다. 버스터미널 주변에 쇼핑센터와 즐길 거리가 있으면 주변 먹거리와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적시 적소에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살기 좋은 동네, 양을산이 있어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곳, 누구나 살고 싶은 상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포시정소식지 무료구독 및 작품모집 안내

구독신청 방법(택 1)

- 전화(061-270-8539) 신청
- 이메일(em7323@korea.kr) 신청(성명, 주소 기재)
-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 → 열린행정 → 시정소식 → 시정소식지 → 구독·해지 신청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우편 발송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작품 모집 안내

- 참여분야 : 목포 속 이야기(시·수필·미담·사진·일러스트), 독자소감 등
- 제출형식 : A4 1매 이내(12포인트)의 글 또는 이미지 파일(가로세로 픽셀 1,000이상)
- 참여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재)
 - ☞ 우편 :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 공보과 시정소식지 담당자 앞 (우 58613)
 - ☞ 이메일 : em7323@korea.kr

※ 지면사정상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작품이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채택된 작품의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한 사진을 em7323@korea.kr로 보내주세요 !

☒ 다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하며, 시정소식지 구독을 신청합니다.

이 름 _____

주 소 _____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포시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시정소식지 정기 우편 발송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구독 해지 신청 시까지
 -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소식지 정기 구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부초등학교 6학년 4반 조치영 作



목포 해상케이블카,

하늘바닷길을 달리게 되는 그날!

당신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국내 최장 3.23km

국내 최고의 **해상 파노라마!**

2019. 4월 개통 예정

탑승거리 3.234m

탑승시간 40분(왕복)

탑승캐빈 10인승 광폭도어

수송인원 1,200명/시간

운행속도 3.5~5m/초

캐빈수량 55기(크리스탈 15기)